

# 일본경제리뷰 No.19\_06

## < Special Issue >

### 미중 무역마찰이 한일의 對中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

#### Contents

<Special Issue> .....	2
I. 한일경제동향 .....	6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 ....	8
2. 경제정책 .....	13
3. 기업전략 .....	16
4. 산업기술 .....	21
III. KJCF&KJE News .....	24
IV. 이달의 추천자료 .....	25
V. 한일경제지표 .....	27



## < Special Issue > 미중 무역마찰이 한일의 對中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

### □ 미중 무역마찰과 한·일에 의한 중국 경유 수출

- 한국과 일본은 미중 무역마찰의 여파를 받기 쉬운 구조가 되고 있음
  - 한국과 일본의 부품을 사용한 완성품을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루트가 정착되고 있는데, 한국과 일본에 의한 중국경유의 수출이라고 할 수 있음
  - 일본의 경우 對美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수출의 약 2%, 금액으로는 약 3.8%분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음. 미국에 의한 對중국 관세가 인상되는 경우, 한국과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정도임

### □ 미중무역마찰의 영향에 관한 시사결과

- 일본경제신문(2019/5/25)에 따르면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은 여러 국제기관에서 시사하고 있음
  - IMF는 미국이 2,670억 달러의 중국제품에 25%의 관세를 부과, 중국도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경우, 중국의 성장률은 2020년 시점에서 0.9% 포인트 떨어지고 미국도 0.3%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
  - 한편 OECD의 부가가치무역 데이터에 기초하면,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도 커지게 됨. OECD 분석은 국제 분업을 고려한 것임
- 일본이 중국에 60달러 상당의 부품을 수출, 중국이 완성품을 100달러로 미국에 수출한다고 하면, 보통은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60달러,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100달러로 계상됨
  - 한편, 부가가치 무역으로 보면 일본이 60달러, 중국이 40달러를 각각 미국에 수출
  - OECD통계에서 일본의 수출액에서 점하는 비율을 통관베이스와 부가가치 베이스로 비교하면, 통관무역 면에서는 중국이 22.1%로 미국을 상회하나, 부가가치 면에서는 미국이 22.2%로 역전
- 그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만드는 부가가치가 중국의 수출을 통하여 미국으로 유출되는 규모가 크다는 점임
  - 미중무역마찰이 격화되면, 한국과 일본도 그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음

- 일본 내각부는 부가가치의 의존관계를 통하여 일본도 상응하는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음

#### □ 중국의 수출액 중 한·일의 부가가치 기여

-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최신 2015년 시점에서 중국의 수출액 2조 달러 중 일본은 1.8%분, 한국은 2.2%의 부가가치를 창출함
- 일본의 경우 금액으로는 약 346억 달러를 창출. 무역통계상 일본의 연간 수출액의 약 35%에 상당하는 규모임

#### □ 일본은 정보통신기기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장 큼

- 중국 수출의 품목별로 가장 큰 것은 정보통신기기인데, 미국의 비판의 표적인 화웨이 기술 등이 관여, 수출액 4,900억 달러 중 일본이 3.3%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
- 그 외에도 일본은 중국의 섬유·의류 수출에서 0.8%, 전기기계 2%, 일반기계에서 1.6%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
- 일본의 '19.1월중 對중국 수출은 9,581억엔으로 전년동월대비 17% 감소
- 스마트폰의 부진영향으로 부품과 반도체 등이 감소
- 현 시점에서 감소의 주된 요인은 중국경제 자체의 감속이라는 견해가 많음
- 다만 미중무역마찰이 격화되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더욱 늘어날 것임
- 중국의 수출에 기여하는 것은 일본만이 아님
- 약 2조 달러의 수출 중 외국 등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19%분의 약 3,700억달러에 이르는데, 일본의 1.8%에 대하여 한국은 2.2%, 대만도 1.7%를 점하고 있음

#### □ 중국의 수출이 감소하면 미국도 타격

- 한편 미국도 2.1%를 창출, 중국이 어려워지면 미국 자신에도 영향이 미침
- 그만큼, 중국경제는 서플라이체인이 세계와 밀접하게 얽히고 있음

#### □ 일본기업, 생산이관을 검토

- 미중 무역마찰의 격화에 따라 일본의 산업계에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음
- 관세의 대상이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으로 확대되는 제4차 조치를 앞두고, 생산체제의 재검토가 잇따르고 있음
- 미국에 의한 제재관세의 제4차 조치는 스마트폰과 손목시계, 의류 등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이 되고 있음
- 일본경제신문(2019/5/13)에 의하면, 손목시계와 디지털카메라 등은 일본기업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어, 각사는 對美 수출에서 절박해지고 있음
- 시티즌 시계는 중국에서 對美 수출용 중저가격대의 손목시계를 생산하고 있는데, 손목시계가 새로이 제재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, 태국과 중국의 생산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, 생산체제의 재검토를 시사하고 있음
- 디지털카메라도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주력상품임. 소니는 중국에서 생산,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데, 제재관세 대상이 된다면, 필요한 대응을 검토한다고 함
- 이번에는 의류 등 소비재에도 25%의 관세인상이 우려되고 있음
-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퍼스트리테일링은 중국공장에서부터 미국에 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고 있음.
- 유니클로의 매출액에서 점하는 북미의 비율은 5%정도로,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가능성이 있음
- 자동차 내장업체인 가사이(河西)공업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금형을 수출하고 있는데, 2018년 7월 이후 관세의 영향은 누계로 5억엔에 이룸
- 관세율이 25%로 상승, 나아가 제 4탄까지 추가되면 영향은 큼

#### □ 한국기업도 중국 생산 재검토

- 일본경제신문(2019/6/14)에 의하면, 이제까지 한국기업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았으나, 미중무역전쟁으로 중국 리스크가 현재화됨에 따라,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중국에서의 생산을 재검토하고 있음

- 현대자동차가 금년 봄 베이징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일부 중단시킨 외에, LG전자도 對美 수출용 가전생산을 중지함
- 삼성전자는 2018년말 생산을 정지한 천진시의 스마트폰 공장에 이어, 광둥성의 공장도 인원삭감을 검토하기 시작함
- 동사 스마트폰의 중국판매는 최근 수년간 계속 떨어지고, 주력 천진공장의 생산정지도 이미 시간문제로 되고 있음
- 특히 삼성전자와 관련하여, 스마트폰의 중국판매는 최근 수년간 계속 떨어져, 2018년 중국시장 점유율은 출하기준으로 1%도 되지 않았음
- 그래도 삼성은 유지해 왔으나 결국 2018년말 동 공장의 생산정지를 결단함
- 삼성이 생산을 유지해 왔던 이유는 생산정지를 결정하면 고용감소를 우려하는 중국에서는 정부로부터 다방면에 걸쳐 압력이 걸리는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이었다고 함

## □ 시사점

- 중국의 수출 감소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대중수출비중이 높고 對中 수출구조가 유사한 한국과 일본에 타격을 주고 있음
- 하나의 경로는 미국의 對中 관세부과가 세계경제의 감속의 경우와 같이 중국의 수출 감소 → 중국의 소득 감소 → 중국의 수입 감소 → 한일의 對中 수출 감소임
- 다른 하나의 경로는 중국의 수출 감소 → 중국 수출상품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부품·소재의 감소 → 한일의 對中 중간재 수출 감소임
- 위에서는 두 번째 경로에서 나타나는 對中 부가가치 수출을 다루었는데, 여기에 첫 번째 영향까지를 합한 것이 중국의 수출 감소가 한국과 일본의 對中 수출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임
-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층 인상하면, 중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, 미중 무역협상의 향방 여하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가일층의 대책이 필요함

## I. 한일 경제 동향

### □ 對日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 품질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- 對日 무역흑자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 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 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 정책이 對日 통상정책의 핵심이 될 것임
-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.1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.2%로 2,000년의 각각 11.9% 및 19.8%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수준임
- 한편, 2018년 한국 제품의 일본 수입시장 점유율도 4.2%로 2000년의 5.4%에 비하여 낮아진 수준임

### □ '19.5월 중 對日 무역

- '19. 5월 對日 무역적자는 1,113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적자폭은 축소
- 對日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 기인한 것임
- 對日 수출은 2,565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2.5%의 대폭 증가
- 10대 對日 수출품목에 금속광물 대신 산업기계가 포함된 가운데, 광물성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對日 수출이 증가
- 전자부품의 對日 수출 증가폭이 40.5%로 가장 큼
- 對日수입은 3,679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9.5%의 대폭 감소

- 10대 對日 수입 품목들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, 정밀기계의 對日 수입이 -42.7%로 가장 큼

#### < 2019년 5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>

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 수출	2,279	-8.2	0.5	2,565	2.0	12.5	12,010	-4.9
對日 수입	4,570	-7.5	6.1	3,679	-16.8	-19.5	20,474	-13.2
무역수지	-2,291	-6.7	12.1	-1,113	-41.7	-52.7	-8,464	-22.7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## 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일본 측의 국제수지기준으로 본 '19. 4월 일본의 對韓 직접투자는 307억엔으로 전월대비 32.6% 감소, 감소폭이 확대
- 이는 한일관계 악화와 미중무역마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
- '19. 4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점하는 對韓 직접투자 비율은 전월과 동일한 0.5%를 유지

#### < 일본인직접투자 추이 >

		2017	2018	2018 4분기	2019 1분기	19.3월	19.4월
신 고 기 준	對韓 일본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1,862 (90.1)	1,301 (-30.1)	333 (246.9)	254 (-23.7)	-	-
	전체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22,970 (7.8)	26,901 (17.1)	7,698 (123.2)	3,174 (-58.8)	-	-
국 제 수 지 기 준	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(억 엔, %)	4,112 (18.8)	6,653 (61.8)	1,355 (-58.5)	-	307 (-1.3)	207 (-32.6)
	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(억 엔, %)	559,108 (-18.0)	643,235 (15.0)	150,244 (7.0)	-	60,834 (84.5)	42,311 (-30.5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- 자동차 내비게이션, 블랙박스 등을 생산하는 일본기업인 (주)엔플레이스가 광주 빛그린 산업단지에 80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(서울경제, 2019/4/23)

#### □ 인적교류

- '19. 5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1.3% 감소
- '19. 5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86,273명으로 전월대비 1.3% 감소, 전년동월대비로는 26.0% 증가
- '14. 5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, 전월대비 6.5% 증가
- '19. 5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603,400명으로 전월보다 6.5% 증가
- 그러나 전년동월대비로는 전체 방일외국인수는 증가했는데도 한국인 방일객수는 5.4% 감소

## II. 이달의 일본경제

### 1. 경기·무역 동향

#### □ 2019년 1분기 GDP 성장률 소폭 상향수정

- 일본 내각부가 6월 10일 발표한 2019년 1분기(1-3월) GDP성장률 수정치는 실질 전기 대비 0.6%, 연율 환산으로 2.2%로 5월에 발표한 속보치(전기대비 0.5%, 연율 2.1%)에서 소폭 상향 수정됨
- 기업의 설비투자가 속보단계의 추계치에서 상향 수정한 것이 전체를 끌어올렸음
- 설비투자는 실질로 전기대비 0.3% 증가, 속보치의 0.3% 감소에서 대폭 상향 수정됨
- 일본 재무성이 6월 3일 발표한 1분기 법인기업통계에 의하면, 일손부족에 의한 생력화(省力化)투자가 활발한 비제조업에서 설비투자가 증가함
- GDP의 절반 이상을 점하는 개인소비는 0.1% 감소로 속보치와 같음
- 주택투자는 0.6% 증가로 속보치에서 하향 수정됨. 공공투자도 속보치의 1.5% 증가에서 1.2% 증가로 하향 수정됨
-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개정치로 인하한 것이 주된 원인

- GDP 성장률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는 플러스 0.1%로 속보치와 같음
- 설비투자의 증가분이 주택투자나 재고의 감소로 상쇄되었기 때문에 외수의 기여도도 플러스 0.4%로 변함이 없음
- GDP는 소폭 상향수정에도, 일본 내각부는 중국경기의 감속이 우려되나 내수는 건조하다는 기본적인 경기인식은 속보단계와 변함이 없다는 판단임
- 그러나 수요동향을 반영하는 수입이 심각하게 줄고 있는 점을 들어, 1~3월기가 예상을 넘는 성장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의 불안이 불식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임

#### □ 경기판단, 2개월 연속 완만한 회복

-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6월 월례경제보고(6월 18일 발표)에서는, 수출과 생산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,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고 5월과 같은 판단을 제시함
- 이 같은 판단은 미중 무역마찰 등으로 외수가 부진한 반면, 내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고용상황이나 기업수익은 계속 건조세를 유지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음
- 다만 앞으로 리스크에 대해서는 통상문제의 동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한층 주의한다는 5월의 문구를 답습함
- 그러나 일본 내각부가 6월 7일 발표한 4월의 경기동향지수(CI, 2015년=100)는 일치지수는 101.9로 전월보다 0.8포인트 상승, 2개월만에 상승했으나, 지수의 추이로부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기초판단은 2개월 연속 악화로 되었음
-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연초에 크게 떨어진 생산의 회복세가 둔화된 것이 배경임
- 일치지수는 생산과 고용 등에 관련된 9개 항목의 통계지표로부터 산출되는데, 신차판매가 호조를 보인 자동차를 포함한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등 4개 항목이 플러스에 기여함
- ‘19.4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1.3% 증가
- 4월 말부터의 대형연휴로 레저 관련 지출이 증가
- ‘19.4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기계수주액은 대형 건설기계 수주의 호조로 전월대비 5.2% 증가

- 제조업은 전월대비 16.3% 증가로 호조를 보인 반면, 비제조업은 부진
- 일본 내각부는 생력화투자가 기계수주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
- 「일본은행 단관(短観, 2019년 3월 조사)」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계획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. 기업은 설비판단은 부족감을 보이고 있음
- 앞으로 기업수익의 개선 및 성장분야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증가가 계속될 전망
- ‘19.4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.6% 상승, 전년동월대비로는 1.1% 감소
- 자동차와 생산용 기계의 생산이 증가
- ‘19.4월의 완전실업률은 전월보다 0.1% 개선된 2.4%
- 완전실업자수는 168만명으로 전월보다 6만명 감소한 가운데, 자발적인 이직이 감소
- 유효구인배율은 전월과 같은 1.63배를 유지,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의 채용의욕이 강함을 반영
-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생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
- ‘19. 5월의 수출수량은 전월대비 13.2% 감소
- EU 지역에 대한 수출수량감소폭이 전월대비 -20.2%로 가장 큼
- 앞으로 당분간은 미중 무역전쟁 등 통상문제의 동향과 중국경제의 감소 등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
- ‘19.4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.9% 상승, 전월비로는 0.3% 상승
- 해외 패키지여행 비용과 숙박비가 상승
- 일본의 실질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
## □ 무역수지 4개월만에 적자 반전

- '19. 5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9,671억 엔 적자로 4개월만에 적자로 반전
 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3,183억 엔 적자에서 3,917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확대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7,231억엔에서 3,949억 엔 흑자폭이 축소
  - 무역수지 적자반전은 수입증가폭에 비하여 수출 감소폭이 매우 컸기 때문임
- '19.5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13.4% 감소한 5조 8,351억 엔
 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고, 철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, 원동기의 수출 감소폭이 -25.4%로 가장 큼(지표 4)
 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출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한 가운데, ASEAN에 대한 수출 감소폭이 -19.3%로 가장 큼(지표 5)
  - 한국에 대한 수출은 전월대비 12.9% 감소
    - 세부 품목별로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제조장치의 수출 감소폭이 전년동월대비 -67.9%나 되었는데, 이는 미중무역마찰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반도체수출이 감소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
- '19.5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3.0% 증가한 6조 8,022억엔
  - 5대 수입품목에 석탄 대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포함된 가운데, 전월과 변함이 없고, 원유를 포함해 모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, 의약품의 수입 증가폭이 7.1%로 가장 큼(지표 6)
    - 수입 감소 품목 중에서는 의류 동부속품의 수입 감소폭이 -17.3%로 가장 큼
  - 주요 국가지역별 수입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폭이 15.4%로 가장 큰 반면, 수입 감소 지역·국가 중에서는 호주로부터의 수입 감소폭이 -3.0%로 가장 큼
 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3.7% 증가(지표 7)

## &lt; 2019년 5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&gt;

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금액	전년 동월비	전월비	금액	전년 동월비	전월비	금액	전년 동기비
수출	6.7	-2.4	-7.0	5.8	-7.8	-13.4	31.7	-4.2
수입	6.6	6.4	-1.5	6.8	-1.5	3.0	25.9	-22.0
수지	0.1	-90.3	80.0	-1.0	67.5	-	5.8	-

자료 : 재무성

- '19.5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09.8엔으로 전월대비 1.7% 엔고
  - 6월 들어서는 안전통화인 엔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108엔대를 유지하다가 6월 20일에는 107엔 47전으로 약 5개월만에 107엔대의 엔고를 기록함
  - 이는 6월 19일 미국 FOMC 후에 미국의 금리인하 관측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크게 저하되면서 엔매입·달러매도가 우세해진데 따른 것임
  - 對圓화 환율은 100엔당 1,076 엔으로 전월대비 5.3% 원저(엔고)
- '19.4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0.5% 감소한 4조 2,311억엔
  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M&A형 투자가 증가
  - 일본의 대외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첫째, 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M&A의 증가, 둘째, 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향상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셋째, 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증가 등을 들 수 있음
  - 對韓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2.6% 감소한 207억엔
- '19.4월의 경상수지 흑자는 전월대비 40.1% 감소한 1조 7,074억엔, 전년동월대비 9.5% 감소
  -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증가한 외에 채권이자의 수취액도 확대되었으나 수출이 크게 감소한데 따른 것임



## 2. 경제정책

### □ 2019년 통상백서 골자

- 경제산업성은 2019년 통상백서에서 보호주의의 고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
  - 주요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관세인상 등의 수입제한조치의 대상무역액은 2018년 5~10월 기간 중 50조엔을 상회, 직전 기간에 비하여 약 6배로 확대되었다고 하는 WTO의 시산결과를 제시하고 위기의식의 공유를 호소하고 있음
  - 미중 간 대립이 제 3국의 무역과 산업을 혼란시킬 우려도 지적함
- 7월에 발표예정인 통상백서의 골자안이 밝혀졌는데, 현황에 대해서는 보호주의가 고조되어, 다각적인 무역체제의 기능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강조
  - WTO 보고에 의하면, 무역제한조치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
- 특히 G20이 수입제한 대상으로 한 무역액은 2017년 10월 ~ 2018년 5월 기간 중 약 740억 달러이었으나, 2018년 5~10월에는 약 6배인 약 4,810억 달러로 증가했음
  - 미국이 철강수입에 25%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음
  - 부당덤핑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방어하는 반덤핑과세의 건수도 전년 상승경향에 있음
- 무역제한조치의 확대는 세계 전체의 경제성장을 떨어트림. OECD는 관세부담의 증가 등으로 미국·중국·유럽의 무역비용이 10% 상승하면, 세계 GDP를 1.4% 떨어트린다는 시산결과를 제시했음
  - 통상백서의 골자안은 무역제한이 발동국 자신에도 타격을 입힌다고 강조, 자체를 촉구하고 있음
  - 나아가 미국과 중국에 의한 추가관세의 발동에 관해서는 제3국에 영향이 파급,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음
  - 하나의 예로서, 미국이 철강수입에 부과한 25%의 관세로 수출처를 상실한 터키 및 러시아의 철강제품이 EU 시장에 유입한 점을 소개함. 이 영향으로 EU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음
-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대두에 추가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,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으로 대체했으나, 브라질 국내 재고량은 대량발주에 의해 대폭 감소했음

- 현재는 중국의 대두 수입량 전체가 감소하고 있어, 중국으로서도 이번 조치는 지속 곤란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음
- 미국 등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은 초래한 하나의 원인으로서, 중국의 보조금정책에 대해서도 다루었음
  - 하이테크노로지산업 육성 정책 「중국제조 2025」에 관련된 보조금이 전체의 40%를 점하고 있으며, 그중에서도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다고 지적함
  - 중국의 중점지원 산업 중 6개 주요기업의 대출 금리를 시산한 바, 대다수의 기업들이 중국의 시장금리보다도 저리로 차입하고 있는 실태가 밝혀졌다고 함
- 이번 백서에서는 중국의 하이테크노로지 패권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에도 강한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음
  - 중국의 특허를 둘러싼 동향도 소개, 중점분야에서의 특허출원 건수, 특허평가액의 전년 증가율에서는,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
  - 차세대 통신규격 5G관련 분야에서는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기업이 제 2위의 미국 기업의 출원 건수를 크게 따돌리고 있는 현상을 제시하고 있음

### < 시사점 >

-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도 일본의 통상백서는 보호주의의 고조에 경종을 울리고 있음
- 작금에 걸쳐 미중무역마찰은 세계경제에 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, 특히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그 타격이 심함
- 더욱이 미국에게 보호주의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보조금정책은 중대한 불공정행위로서 보호주의의 확산방지와 더불어 경계와 시정이 요구됨

### □ 경제산업성,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대해 입찰방식으로 전환

- 경제산업성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대형 전력회사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제도를 종료키로 함
  - 매입비용의 증가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, 새로운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취지인데, 2020년이나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임

- 일본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를 앞으로 주력 전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나, 현저히 늦어지고 있는 송전망의 정비 등 아직 과제도 많음
- 재생에너지의 매입비용은 2019년도에 약 3.6조엔에 달하는데, 이 중 가정과 기업에 전가되는 분은 약 2.4조엔까지 팽창, 재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왔음
- 이에 경제산업성은 대책으로서 독일 등 유럽 각국이 고정가격매입제도(FIT)대신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방식을 채택기로 함
  - 경제산업성은 현행 FIT를 2012년에 도입했는데,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국가가 결정한 고정가격으로 모두 매입하게 되어 있어 비용은 전기요금에 전가됨
- 50~100kW를 넘는 중·대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사업자는 스스로 판매처를 찾아내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하도록 할 방침임
  - 가격은 거래처와의 교섭과 시장상황에 따라 변하게 됨
- 고정가격매입의 장점을 없애는 대신, 도매시장에서 전력가격이 급락하여 기준가격을 하회한 경우는 국가가 이를 보전해줌
- 이러한 조치를 받는 사업자는 기준가격에 관한 경쟁입찰을 선택하게 됨
  -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자사의 발전비용을 고려하면서 기준가격의 후보를 제시하고, 경제산업성은 그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일정수의 사업자를 인정해줌
  - 기준가격은 낙찰된 사업자별로 다른 가격이 될 전망이다. 입찰은 수개월마다 등 정기적으로 실시함
- 낙찰된 사업자는 시장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손실이 팽창할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어,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쉬워짐
- 한편,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거래처를 발견하기 위한 경영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, 사업자간 경쟁이 이루어져 전기요금이 하락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음
- 소규모 사업용 태양광과 가정용 태양광에서는 매입제도 자체는 잔존하나, 매입은 전량이 아니고 자가소비로 남은 양만이 대상이 됨. 매입에 드는 비용은 대폭 삭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,
- 일본정부는 재생에너지의 구성비를 2017년의 16%에서 2030년에 22~24%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함

- 그러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제도 외에도 과제가 많음
  - 특히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송전선의 능력부족임. 규슈 지방에서는 송전망이나 혼슈 지방과의 연계선이 부족하여, 발전억제가 필요한 사태가 빈발하고 있음
  - 도후쿠 지방에서는 가동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발전소용으로 송전선이 확보되어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사용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. 전력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인프라 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

### < 시사점 >

-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FIT 제도는 사업자의 초기 셋업(set up)단계에서 드는 셋업비용 커버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음
- 그러나 이후 태양광 등의 사업이 성장, 자생력이 생김에 따라 소비자부담의 증가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
-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FIT제도에 의한 사업자의 보호를 중단 내지는 줄이고, 입찰 제도로의 변경 등, 경쟁촉진을 통하여 소비자후생 증진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

## 3. 기업전략

### □ 일본전산의 M&A 무패 전략(일본경제신문 2019/6/11)

(일본전산 홈페이지 [www.nidec.com/ja-JP/](http://www.nidec.com/ja-JP/))

- 2018년 시가총액 증가율이 가장 컸던 일본기업은 자동차와 로봇 등의 모터를 취급하는 일본전산임
  - 1973년 창업한 교토에서 창업한 동사는 과거 63건의 기업매수를 발판으로 성장한 이후, 대형손실을 낸 적이 없는 동사의 기업매수에는 독특한 방법이 있음
- 일본전산은 창업 후 50년도 되지 않아, HDD용 모터 분야에서는 85%, 휴대전화의 진동모터와 전동파워스티어링용 분야에서는 40%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음
  - 1989년 이후 30년간 시가총액의 증가율은 69배로, 비교가능한 모든 일본 내 상장 기업 중 최고임



- 일반적으로 기업은 M&A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M&A시 투자은행 등의 자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보통이나, 일본전산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포착하는데 있어서, 타력에 의존하는 일은 없음
- 매수계획의 책정과 실행은 3개의 부서가 관여함. M&A전문 기업전략실, 각 사업본부, M&A자문위원회가 준비를 하고 회장에게 자문함
- 투자은행 등은 통상 매수기업의 가치산정에 디스카운트캐쉬플로(DCF)법을 사용함
- 기업이 장래 창출하는 수익을 기준으로 할인율 등을 가미하는 수법은 파이낸스의 기본임
- 그러나 전제가 되는 할인율에 의해 가격이 변하는 등 난점도 있어, 일본전산은 EV/EBITDA배율을 중시함
- 이는 기업가치를 EBITDA(이자지불·세금공제·상각전이익)으로 나눈 수치로, 매수자금을 몇 년에 회수할 수 있는가의 목표치임
- 일반적으로 8~10배가 적정하다고 하나, 일본전산은 안전에 따라서는 7배 이하로서, 부동산거래나 납세신고서, 오너 가족의 상속권 등도 정밀히 조사하여 주식의 고가매입을 방지함
- 주의에 주의를 거듭한 후에 매수계약서에 사인을 하나, 일본전산은 아직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함. 매수의 성패를 쥐는 것이 나머지 90%로서, 매수 후 통합작업(PMI)임
-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보이는 소위 우물파기 경영과 복잡한 문제를 분할하는 분할경영임
- 동사 회장과 사장은 국내외 매수처를 돌아보고 독자적인 경영수법이나 비용절감 대책을 찾아냄
- 다만 주식의 고가매입 회피나 PMI의 중요성은 경영의 교과서에 나오기 때문에 직접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
- 마이크로 경영의 화신이라고 자평하는 바와 같이, 동사 회장의 지휘는 세심함
- 2003년에 구 산교세이키(三協精機)제작소를 산하에 넣었을 때는 회장이 전표를 1엔 단위로 체크했다고 함. 100억엔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던 동사는 1년반만에 최고 이익을 갱신했음

-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 M&A의 88%는 실패하고 있음. 10%는 성공도 실패도 아님. 성공하고 있는 것은 2%라고 동사 회장은 말하고 있음
- 일본기업의 해외 M&A에서는 무형 기업가치의 「노렌(영업권)」의 상각으로 거액의 손실을 계상하는 경우도 많음
- 주식의 고가매입과 PMI의 실패가 주된 원인이나, 규칙이라고도 해야 할 경험법칙을 가진 일본전산의 과거 63건의 M&A에서는 한 번도 없었음
- 최근에는 미국 에머슨일렉트릭 사업부문과 오프론의 자동차사업 등 1,000억엔 규모의 대형매수가 증가하고 있음
- 대형매수를 큰 바윗돌이라고 한다면, 100억엔 정도까지의 중소형매수는 조리품이라고 부르고 있음
- 돌담을 쌓는 것처럼, 큰 바위사이를 작은 돌로 메꾸는 전략이나, 대형안전에서는 EV/EBITDA배율이 10배 가까운 것도 나왔음. 무패기록을 늘리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

#### < 시사점 >

- 일본전산의 사례는 제조업에서 현장이 중요하듯이 M&A에서도 현장과 규칙이라고도 해야 할 경험법칙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줌
-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보이는 소위 우물파기 경영과 복잡한 문제를 분할하는 분할경영, 매수 후 통합작업(PMI)의 중시, 독이 들어간 만두는 먹지 말라, 남에게 맡기지 말라 등과 같은 동사 회장의 은어가 이를 말해주고 있음

#### □ 도요타, 중국의 세계 최대 전지업체와 제휴(일본경제신문 2019/6/7)

(도요타자동차 홈페이지 <https://global.toyota/jp/>)

- 도요타자동차가 차대용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업체인 CATL(寧德時代新能源科技)과 제휴함
- 도요타는 전기자동차(EV)의 핵심부품의 조달처를 확대, 자사의 세계 판매대수의 절반을 전동차로 하는 목표시기를 2025년으로 종래보다 5년 정도 앞당김
- 중국은 전동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중국정부의 환경자동차 규제 등으로 세계 최대 EV 시장이 됨

- 이에 따라 세계 자동차업체가 휘발유로부터 EV로의 이행을 서두르는 가운데, 중국 전지메이커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
- 도요타는 CATL과 전략적인 파트너십 각서를 교환하고 협업의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감
  - 2020년 이후 중국 등에서 판매하는 도요타 브랜드의 EV에 대한 리튬이온 전지공급에 관하여 협의할 예정으로, 전지의 품질향상이나 규격의 공통화, 재이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업을 구체화해나갈 계획임
- 현재 CATL을 둘러싸고 혼다가 EV용 전지를 공동개발, نيسان자동차도 2018년부터 판매해오고 있는 EV에 동사의 전지를 사용할 계획임
  - 또 독일 BMW와 폭스바겐도 전지를 조달하는 등, 세계 자동차메이커들과 제휴관계에 있음
  - 현재 전지는 EV가격의 30% 이상을 차지하고 항속거리 등 성능향상에도 전지의 역할은 큼. 도요타가 차세대 전고체전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등 개발경쟁은 치열함
- 조사기관인 테크노시스템리서치에 의하면, CATL의 차대용 리튬이온전지의 세계시장점유율은 2017년에 약 16%로 파나소닉(약 15%)을 제치고 세계 수위임
  - 중국정부가 현지 업체의 전지를 사용하는 EV에 우대책을 취해온 점도 있어, 생산 규모를 확대하여 코스트 경쟁력을 높여왔음
-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자동차(HV)와 EV용 전지는 파나소닉과 공동출자한 그룹회사 등으로부터 조달해온 외에, 파나소닉은 2020년 말까지 신회사를 설립키로 함
  - 그러나 전동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, 전지의 조달량 확대가 과제였음
  - CATL과 손잡고 EV의 최대시장인 중국을 중심으로 조달처를 다양화시킬 생각임
  - 도요타는 전지분야 등에서 국내외 수개사와도 새로이 협업할 방향이며, EV의 보급에 대비하여 팀을 구축할 예정임
- 도요타는 2030년에 세계 판매대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550만대 이상을 전동차로 하는 목표를 내걸어 왔는데, 이를 약 5년 앞당길 방침임
  - HV와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(PHV)가 함께 10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. 2018년 전동차의 세계 판매대수는 약 163만대로 2025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하게 됨

- 도요타가 전동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, 주요국들의 환경규제 강화와 세계 경쟁자들의 급속한 EV화 추진임
  - VW는 2028년까지 70개 차종의 EV를 발매, 연간 300만대 이상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, EV 비율은 2030년에 전체의 약 40%까지 높아질 전망이다
  - 독일 다임러는 2030년까지 세계 판매대수의 절반을, نيسان자동차는 2022년도 세계 판매대수의 30%를 EV 및 PHV로 할 계획임
- 도요타는 중국에서 EV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을 본격화하기 위해, 합작파트너인 광주기차그룹과 운영하는 공장을 증강하여 2022년에 최대 연간 4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됨

### < 시사점 >

- 도요타와 CATL의 제휴는 EV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응한 세계 최대 차대용 전지업체와 자동차생산업체간 제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함
- 도요타 자동차로서는 전기자동차 생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차대용전지의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한 한편, 도요타는 CATL에게 중요한 수요원임
  - 더욱이 도요타가 CATL과 제휴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 정부의 자국 배터리 우대 정책임. 중국은 외국 업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자국 배터리 업체를 지원하고 있음
- 비록 양사가 수요와 공급 면에서 쌍방독점적인 지위는 아니더라도 세계 경쟁자들의 급속한 EV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상대의 의도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거래량을 결정하면서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전개해나갈 것으로 전망됨
- 나아가 본 사례는 EV시대에 중일간 자동차산업협력의 새로운 모델로서 한국 자동차업체에도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음

## 4. 산업기술

### □ 모노즈쿠리 데이터 거래를 위해, 일본의 100개사가 제휴(일본경제신문2019/6/17)

- 미쓰비시전기, 야스카와전기 등 일본의 주요 메이커 100개사가 제휴하여, 설비의 가동 상황 및 품질 검사 등의 제조 데이터를 상호 거래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
  - 생산 및 가공 정보를 거래처와 공유함으로써, 개발기간 단축과 모노즈쿠리의 효율성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대됨
  - 품질 및 생산성향상의 관건이 되는 제조데이터는 경쟁력의 원천으로, 많은 기업들이 자사 내에 두어왔음
  - 블록체인(분산형대장)기술을 응용하여 안정성이 높은 환경에서 타사와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경쟁력향상으로 이어지게 함
- 제조 데이터의 새로운 거래시스템은 2020년 봄을 목표로 가동시키게 되는데, DMG 모리세이키 등 세계에서 경쟁력이 높은 공작기계업체 등이 다수 참가할 전망이다
  -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IoT 활용을 일본에서 추진하기 위해 2015년에 출범한 제조업 업계단체 「인더스트리얼 밸류체인 이니셔티브(IVI)」가 운영 모체임
  - IoT 중 공장 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조업 IoT는 이제까지 개별기업 내에서 추진해왔으나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는 형태로도 움직이기 시작함
  -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설계나 생산설비의 가동상황, 품질검사의 데이터 등을 교환함
    - 예를 들면 전기업체들이 전자제어형 공작기계의 생산데이터를 부품메이커와 공유하게 되면, 보다 신속하게 부품의 양산체제에 들어오게 됨
  - 공작기계업체가 납품처 기업과 설비의 가동데이터를 공유하면, 부품의 마모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, 설비의 안전에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, 기계의 고장시기를 예측하여 사전에 부품을 교환함으로써 생산손실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예상됨
  -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제조데이터에는 경쟁력에 직결되는 노하우가 포함되기 때문에, 메이커는 엄중하게 관리하고 타사와는 거의 공유하지 못했음
  - 새로운 거래시스템은 공시한 데이터의 범위나 제공처를 참가기업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

- 시스템에는 가상통화(암호자산)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장치를 응용함
  - 특정 서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비하여 제조 노하우 유출 등 정보 누설의 리스크를 억제할 수 있는 외에, 운용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 - IVI는 거래력의 관리나 권리의 조정역할도 담당하는데, 참가기업은 상대와도 다수 기업 간에도 거래할 수 있고, 가격은 개별적으로 정하고, 무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음
- 세계시장 점유율의 50%를 장악하고 있는 산업용로봇 등 고도의 제조기술을 가진 기업만이 아니고, 디지털투자가 어려운 중소제조업체의 참가도 촉진하여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음
- 데이터 분석에 강한 IT기업들에게도 참가를 격려하여 정보를 생산성개선에 활용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2023년까지 참가기업을 500개사로 늘릴 계획이며, 독일의 인더스트리 4.0을 주도하는 단체와의 제휴도 검토하고 있음
- IoT와 인공지능의 보급에 의해 제조업에서도 활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도록 되어있음
  - 미국의 GE 등이 데이터의 포섭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외에, 독일에서는 산학관이 제휴하여 데이터유통 인프라의 정비에도 착수하고 있음
- 일본도 개별기업들의 대응은 시작되고 있으나 횡단적인 데이터의 유통은 늦어지고 있음
  - 자사가 주도하는 정보기반을 구축하는 파낙 등도 참여시켜 데이터유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가가 과제임

### < 시사점 >

- 제4차 산업혁명 시대, IoT시대에는 모노즈쿠리 데이터가 무엇보다도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, 상기한 모노즈쿠리 데이터 공유시스템은 데이터유출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음
- 그러나 동 시스템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화낙과 같은 자사 주도의 정보기반을 구축하려는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문제, 아웃사이드 즉 제휴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의 불이익 문제 등이 해결될 필요가 있음

## □ 탄소섬유의 신소재, 항공부품의 비용 절반으로(일본경제신문 2019/6/17)

- 섬유사업 대기업인 도레이 및 테이진이 경량성이 뛰어난 탄소섬유 분야에서 항공기용 신소재를 잇따라 투입함
  - 양산 및 가공하기 쉽고, 앞으로는 부품의 생산비용이 최대 절반정도로 절감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음
  - 2021년경부터 기존 기종에 공급을 늘려, 2025년경에 차세대기에 본격적인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
  - 일본기업의 기술혁신이 연비성능 등에 뛰어난 항공기 보급을 가속시킬 전망이다
- 도레이와 테이진 양사는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산업 전시회에서 신제품을 소개
  - 탄소섬유는 철에 비하여 1/4의 경량으로 10배 이상 강도가 있는 소재로서 도레이, 테이진, 미쓰비시케미칼 등 일본의 3개 기업들이 세계시장점유율의 약 60%를 장악, 세계적으로도 주목도가 높음
  - 수지와 조합한 복합재로 하여 항공부품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음
- 도레이(본사: 오사카시 및 도쿄도, <https://www.toray.co.jp/>)는 열을 추가하면 강해지는 열경화성이라 부르는 복합재가 주력임
  - 수지의 배합 등을 연구하여 생산기간을 2~3배 단축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했음
  - 종래의 상품은 미국 보잉여객기 787의 주날개와 동체에 사용되었으나 생산에 시간이 걸려, 월산 10대분 밖에 만들 수 없는 등의 난점이 있었음
  - 이 외에 열을 가하면 부드러워져 부품에 가공하기 쉬운 열가소성이라 부르는 복합재에도 주력하고 있는데, 네덜란드의 동업 메이커 매수를 통하여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했음
- 테이진(본사: 오사카시, <https://www.teijin.co.jp/>)도 열경화성에 대해 양산성을 높인 제품을 개발, 유럽의 대형 항공업체들에게 빠르면 2020년에 공급할 예정임
  - 열가소성 제품도 보잉의 차세대기에 2021년까지 공급을 시작함. 항공 관련 탄소소재 분야에서 2030년에 현재의 3배인 약 1,000억엔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이상과 같은 일련의 신제품이 보급되면, 항공부품의 생산비용은 대폭 절감될 전망이다
  - 탄소섬유는 주로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의 중·대형기에서 사용되었음

## < 시사점 >

- 도레이와 테이진은 탄소섬유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탄소 섬유업체의 쌍두마차와 같은 존재임
- 우리 정부도 2020년까지 8조엔 규모의 투자를 통해 탄소섬유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개발에 나선 가운데, 국내에서는 화신테크가 탄소섬유 소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투자기업 도레이 첨단소재가 가장 적극적인
- 탄소섬유는 항공기 부품 외에도 특히, 미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 받고 있는 수소 자동차의 경량화를 위한 핵심소재인 만큼, 친환경차의 차체 초경량화 소재, 부품과 관련한 공동개발 및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

## Ⅲ. KJCF & KJE News

### 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행사 결과

<p><b>2019년도 기술인재 양성교육</b></p> <p>일시 : 2019년 6월 11~14일 / 3박 4일</p> <p>장소 :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력개발원 (경기도 용인)</p> <p>참가 : 국내 중소기업 임직원 44명 (8개 교육과정별 5~6명)</p>	
<p><b>2019년도 일본 모노즈쿠리 IoT연수(2차)</b></p> <p>일시 : 2019년 6월 17~21일 / 4박 5일</p> <p>장소 : 일본 도쿄 및 사이타마 지역</p> <p>참가 : 국내 중소기업 공장개선&amp;품질개선&amp;생산기술 관련 업무담당 과장·팀장급 20명</p>	



## 한일경제 기업현안 토론회

일시 : 2019년 6월 26일(수) 09:30~12:00

장소 : 사울 프레스센터 19층

주제 : 기업에서 바라본 한일관계

주최 : 한일경제협회, 한국경영자총협회

참가 : 한일 기업인 약 70명



## □ 한일재단 &amp;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모집 안내

## ■ 2019 한일산업협력상(산업부장관포상) 신청안내

포상훈격 : 한일산업협력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(6사(명))

※ 정부 공적조사심의위원회 선정

시 상 일 : 2019년 9월 24일(화) / 서울

▷ 한일산업기술페어 개최식 프로그램(시상식)에서 수여

※ 산업부 시상

신청방법 :

▷ 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

문 의 : 경영기획실 이승혁 차장 (02-3014-9802 / shlee@kjc.or.kr)



## IV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『산업용로봇의 지능화, 어디까지 왔나』 2019-06-19

『(연구자료) 한일 경제관계의 변화와 대일 경쟁력』 2019-05-30

『2019년판 중소기업백서』 2019-05-28

## 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○ 『지적재산권 추진계획, 2019(안)』 일본수상관저, '19.6.21

<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titeki2/190621/siryou2.pdf>

○ 『성장전략 실행계획』 일본수상관저 '19.6.21

<https://www.kantei.go.jp/jp/singi/keizaisaisei/kettei.html>

○ 『骨太 성장전략 2019년의 포인트』 제일생명경제연구소, '19.6.20

<http://group.dai-ichi-life.co.jp/dlri/pdf/macro/2019/hoshi190619.pdf>

○ 『모바일시장의 경쟁축진을 위한 제도정비(안)』 총무성, '19.6.19

[http://www.soumu.go.jp/main\\_sosiki/kenkyu/mobile\\_market\\_competition/02kiban03\\_04000474.html](http://www.soumu.go.jp/main_sosiki/kenkyu/mobile_market_competition/02kiban03_04000474.html)

○ 『대외경제정책의 현황과 앞으로 방향성』 경제산업성, '19.6.19

[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tsusho\\_boeki/pdf/006\\_02\\_00.pdf](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tsusho_boeki/pdf/006_02_00.pdf)

○ 『글로벌니치탑기업의 55년후 현황과 과제』 경제산업성, '19.6.18

[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06/20190617001/20190617001\\_01.pdf](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06/20190617001/20190617001_01.pdf)

○ 『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선언·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』 수상관저, '19.6.15

<http://www.kantei.go.jp/jp/singi/it2/kettei/pdf/20190614/siryou1.pdf>

○ 『세계 주요 기계산업의 현황과 일본의 위치』 일본기계진흥협회경제연구소, '19.6.13

[http://www.jspmi.or.jp/system/file/6/68/201906essey02\\_yamamototetsu.pdf](http://www.jspmi.or.jp/system/file/6/68/201906essey02_yamamototetsu.pdf)

○ 『2019년 에너지백서』 자원에너지청, '19.6.8

<https://www.enecho.meti.go.jp/about/whitepaper/2019pdf/>

○ 『인프라 시스템의 수출전략』 수상관저, '19.6.4

<http://www.kantei.go.jp/jp/singi/keikyoku/dai43/siryou2.pdf>

○ 『메가 FTA동향』 일본국립국회도서관, '19.5.29

[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\\_11286066\\_po\\_1057.pdf?contentNo=1](http://dl.ndl.go.jp/view/download/digidepo_11286066_po_1057.pdf?contentNo=1)

○ 『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방향성』 경제산업성, '19.5.25

[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2050\\_keizai/20190524\\_report.html](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2050_keizai/20190524_report.html)



## V. 한일경제지표

## 1) 2019년 5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계	2,279	-8.2	0.5	2,565	2.0	12.5	12,010	-4.9
1	철강제품	327	-4.8	-2.7	367	-0.7	12.2	1,781	1.4
2	광물성연료	384	12.4	58.7	361	23.0	-6.0	1,839	-5.1
3	정밀화학제품	165	4.4	-8.3	192	7.0	16.3	884	7.9
4	전자부품	126	-17.5	-3.1	177	7.5	40.5	716	-6.2
5	석유화학제품	127	-39.9	23.3	159	-21.9	25.2	1,672	-3.1
6	수송기계	93	-25.7	-16.3	117	-1.4	25.8	536	-10.5
7	산업용전자제품	94	-2.4	-27.1	114	3.1	21.2	547	-13.0
8	기계요소공구금형	80	-1.0	-7.0	103	19.8	28.8	453	4.2
9	농산물	99	3.7	-3.9	99	1.2	0.0	487	5.1
10	산업기계	71	-1.4	-14.5	89	17.7	25.4	405	9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) 2019년 5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위	품목명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	총 계	4,570	-7.5	6.1	3,679	-16.8	-19.5	20,474	-13.2
1	철강제품	606	0.8	13.3	562	0.0	-7.3	2,744	-4.2
2	전자부품	528	0.7	-1.9	481	6.8	-8.9	2,511	-4.9
3	석유화학제품	376	9.2	5.0	332	5.7	-11.8	1,672	-3.1
4	정밀화학제품	452	2.3	16.8	303	-20.3	-33.0	1,915	-3.4
5	정밀기계	419	-42.3	13.9	240	-62.9	-42.7	1,761	-51.9
6	산업용전자제품	237	-17.4	-10.6	227	-15.3	-4.3	1,154	-15.1
7	수송기계	285	17.3	22.3	190	-7.4	-33.3	1,183	3.8
8	기초산업기계	210	-15.5	-9.9	175	-17.5	-16.7	975	-18.2
9	산업기계	198	1.0	-20.0	161	-7.5	-18.7	952	7.9
10	플라스틱제품	198	-1.3	8.2	160	-12.8	-19.2	890	-3.8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8	2018			2019			
			2/4	3/4	4/4	1/4	3월	4월	5월
GDP증가율(실질, 연율,%)		0.7	2.2	-2.6	1.9	2.2p)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100)		-	-	-	-	-	101.1	101.9	-
광공업생산증가율(전기비,%)		1.0	1.3	-1.3	1.9	-	-0.9	0.6	-
실질소비증가율(전년비,%)		0.4	-1.4	-0.2	0.6	-	2.1	1.3	-
기계수주액증가율(전기비,%)		3.6	2.2	0.9	-4.2	-	3.8	5.2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1.0	-0.1	0.3	0.2	-	0.1	0.3	-
	전년비	1.0	0.7	0.9	0.9	-	0.8	0.9	-
실업률(%)		2.4	2.4	2.4	2.4	-	2.5	2.4	-
수출액(조엔)		81.5	20.2	20.1	21.1	19.2	7.2	6.7	5.8
수입액(조엔)		82.7	19.4	20.7	22.5	19.8	6.7	6.6	6.8
무역수지(조엔)		-1.2	0.8	-0.6	-1.3	-0.6	0.5	1.0	-1.0
경상수지(조엔)		19.0	4.9	5.6	2.6	-	2.8	1.7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64.2	14.6	13.7	15.0	-	6.1	4.2	-
환율	달러	110.4	109.1	111.5	112.9	110.2	111.2	111.7	109.8
	원화(100엔)	996	989	1,007	999	1,021	1,017	1,022	1,076
금리(10년물,%)		0.071	0.089	0.098	0.076	0.023	-0.044	-0.044	-0.064
주가(닛케이, 엔)		22,310	22,341	22,654	65,691	21,000	21,415	21,965	21,218

주: p)는 개정치(2차 속보치) \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 한국은행

## 4) 2019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
1	자동차	10,637	-0.7	-3.5	8,931	3.5	-16.0	49,703	-0.4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216	-5.7	0.5	3,091	-3.9	-3.9	15,164	-6.7
3	자동차부품	3,250	-4.1	-3.7	2,720	-11.8	-16.3	15,051	-6.4
4	철강	2,552	-2.5	-7.1	2,714	-8.7	6.3	12,716	-9.7
5	원동기	2,409	-3.5	-12.5	2,039	-3.8	-25.4	11,583	-2.0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5) 2019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미국	14,102	9.6	-0.4	11,877	3.3	-15.8	64,561	5.4
2	중국	12,329	-6.3	-5.5	11,484	-9.7	-6.9	57,837	-7.8
3	ASEAN	10,175	0.4	-5.3	8,208	-17.5	-19.3	47,062	-7.1
4	EU	7,979	-2.6	-7.4	6,474	-7.1	-18.9	38,070	-0.3
5	한국	4,611	-4.2	-7.6	4,017	-13.3	-12.9	21,956	-10.3
6	대만	3,730	-2.7	-14.9	3,476	-7.3	-6.8	18,434	-2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6) 2019년 5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7,577	13.8	11.1	7,538	10.6	-0.5	34,179	-0.7
2	액화천연가스	3,135	5.8	-29.6	3,021	-13.7	-3.6	20,062	5.2
3	의약품	2,283	5.0	-9.9	2,446	-11.4	7.1	12,266	-1.7
4	의류 등부속품	2,607	3.1	-0.7	2,156	-7.9	-17.3	10,461	-16.8
5	반도체 등 전자부품	2,063	-3.9	-8.1	2,138	-8.2	3.6	10,528	-5.5
4	석탄	2,304	5.9	-1.5	2,026	-13.9	-12.1	11,159	-17.3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7) 2019년 5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4월			2019.5월			2019.1-5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5,516	5.9	3.6	15,401	-0.9	-0.7	76,977	1.1
2	ASEAN	9,421	5.7	-7.1	9,580	-6.6	1.7	49,285	-2.8
3	EU	7,945	10.6	-2.8	8,989	8.7	13.1	40,486	3.1
4	미국	6,870	2.3	-6.2	7,927	-1.6	15.4	36,621	2.4
5	호주	4,065	5.1	-14.9	3,943	-5.5	-3.0	21,371	6.8
7	한국	2,665	-2.9	-4.7	2,763	-5.2	3.7	13,673	-6.5

자료 : 일본 재무성